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가나다 순) 등이다.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출마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는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등록을 하면 총 8명이 후보가 나온다.

나머지 7명 중 현재 가장 유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주경복 교수. 주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10여년간 활동해 왔으며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등 진보계열 교육시민단체

의 지지를 받아 지난달 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주 후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내용을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왔고, 공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와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성적 공개 등이 경쟁 과열을 불러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자율화, 곧 '아이들 학대 교육'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도 교육감들은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출범 전부터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데 골몰했던 장본인들이다.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억압하고, 일제고사 부활을 주도했던 서울시 교육감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사실 자체를 아는 유권자가 드문 데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인 7월 30일이 평일이고 휴가기간이라 투표율이 10%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선관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이외에, 충남교육감 선거는 오는 25일 열리며 전북은 7월 23일, 대전은 12월 17일, 경기도는 내년 4월 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6, 7, 15면)

❖ 서울시교육감 예상 후보자 명단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

* 공정택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 서울시교육감 선거 일정

7월15~16일	후보자 등록
7월17일	선거운동 시작
7월30일	투표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5.28 [공동기자회견]교과부 특별 교부금 불법 집행 공익감사청구와 장관퇴진 촉구기자회견
- 6.03 [성명]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시장에 맡겨둘 상품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6.09 [서울지부 성명]서울시교육청 학원시간 연장 조례개정 반대 성명
- 6.10 [기자회견]2MB 교육정책 전면 규탄 학부모 선언
- 6.19 [성명]미친교육 주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주호를 당장 교체하라
- 6.24 [성명]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진 방안을 즉각 취소하라
- 6.26 [인천지부 성명] 과당경쟁 유발시켜 시험문제 유출까지 낳게 한 '변질된 학업성취도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있다

이달의 주요기사

- 0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 05 정책
교장 공모제를 살려야 한다
- 06 기획특집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7.30 서울교육감 선거

- 08 지부 지회
'미친소·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 11 생활 속의 인권
아이들에게 방해가 없어요
- 12 지부지회소모임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은 진정한 대화

2008년 여름연수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회원 여러분, 상반기동안 교육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연수에서 함께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일시 | 2008년 8월 15일(금)~16일(토)
- 장소 |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 문의 | 사무처 02-393-892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연재

1회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거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
7회 운동회
8회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범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알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소통! 불통! 울화통!

교사와 학부모 소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편집자 주〉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소통'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화두는 학교 현장에도 발 견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문제는 아이들과 연관이 됨으로써 더욱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16호]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문제를 다루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기하게도 엉뚱한 방법들이 먹힐 때가 있다. 자동차 끼리 부딪쳤을 때 먼저 기선 제압하라! 무조건 목소리를 키우고 몹시 아픈 표정을 지어라, 내가 잘못해서 경찰차를 방문하더라도 절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마라, 어깨 쪽 펴고 부모도 당당히 걸어 들어가라! 심지어 엄마가 뒷 일은 책임질 테니 맞지 말고 때리고 와라 등등...

어쩌다 이렇게 손톱 끝만큼도 손해 안 보고 살려는 세상이 되었는지, 어쩌다 힘만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다. 이 힘의 논리와 엉뚱한 일들이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참 걱정이다. 힘을 앞세우다 보니 교육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죄인을 다루듯이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무조건 목소리 크고 밀어붙이는 것이 통용되어 폭력이 교실을 점령하며 고소 고발장이 날아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교사나 학부모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아이들끼리 영영 앙숙이 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다반수다. 근본적인 문제에는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숙제로만 남은 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손쉬운 결론만 남을 뿐이다.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학부모가 분개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하

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지만 학교 졸업장이라도 타야 하니 '나 죽었습니다.' 하고 지내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은 끔찍한 지옥 같으리라!

단계를 밟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결할 때도 너무 일방적이고, 징계를 위한 징계로 끝날 때가 많다. 그 아이가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치유 한다든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학교의 모든 규정들이 철저히 아이들은 배제된 채,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적어도 학교만큼은 평등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학교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면

1) 문제 행동이 왜 발발했는지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결과만을 놓고 보기 때문이다. 보이는 현상 즉 때리고 싸우고 다친 부분만 보인다. 많은 아이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사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석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두 아이가 엉겨 붙어 싸우고 있는데 한 아이는 코피가 터져 있고 한 아이는 멀쩡하게 있다고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사는 코피 터진 아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상대방 아이에게 다짜고짜 호통을 치며 벌을 세운다. 나중에 이 아이에게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우위에 있는 지위 때문일까?

2) 학부모의 이기적 발상으로 인해 (내 아이만 봐주기)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내 아이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아합도 불사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적 모습에서 내 아이뿐만 아니

라 다른 아이들도 큰 좌절감을 맛본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자면, 어느 중학교 여섯 명의 아이들이 친구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동영상 찍었다. 그런데 학생징계에서 두 명의 아이는 학교의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던 학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선처를 하여 징계에서 제외 하였다. 다른 네 명의 학부모들에게는 그 두 아이가 이 무리에서 빠지는 걸 묵인해 준다면 나머지 학생에게도 학적부에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을 다물기로 합의하고 교내봉사를 했다고 한다.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이 두려워 뒷거래(?) 불사하는 학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씁쓸함을 느낀다.

3)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교사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민원이나 학교장을 찾기 전에 충분히 내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아는 아이의 모습과 교사가 바라보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내 아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아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정하고 개선책을 교사와 협력하여 풀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를 공격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했는데도 별 변화가 없거나 상황이 악화될 때 해도 늦지 않다.

많은 경우, 자녀문제를 해결하려고 학교를 방문했다가 교사와 감정적 대립으로 아이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른들끼리의 감정 대립만 남게 된다. 서로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만 했어도 생기지 않을 일이 그 한 마디를 챙기지 못해 오랜 시간 서로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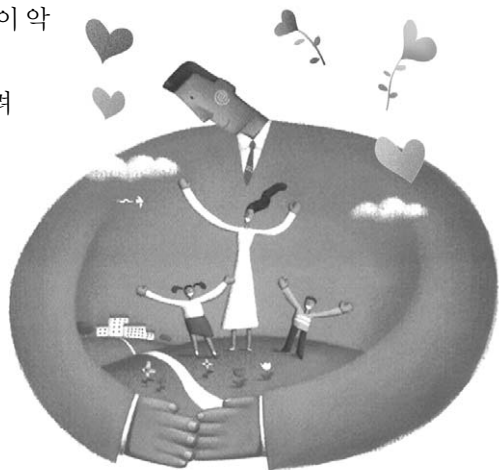
많다.

사례마다 모두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원인도 다양하게 많다.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 교사, 아이들이 서로 소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소통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로 신뢰하지 않는 데 무슨 나눔과 통합이 있겠는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 안에서 기본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교사가 체벌과 폭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한 아이들과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도 교사를 교사로서 존중하지 않고 기 싸움 대상으로 생각하여 폭언을 한다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학교는 더욱 삭막해지고 신뢰 회복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권이 있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으로 살아있는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표로서의 인권 교육과 실천이 제대로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황수경 (학부모 상담실)



학부모 입장

작은 아니면 특별한 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좁은 지역에 오래 동안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늦게 서야 아이를 하나 두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좀 별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현 재료로 집 마당에 미끄럼틀, 그네, 연못 등을 만들고 그 위를 포도넝쿨로 뒤덮었을 때만 해도 좋다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던 엄마들이 어느 날부터가 혼자 와서 꽃을 즐기거나 그네에 앉아 있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은 항상 열려있었음) 그러면서 “아니, 애를 이렇게 집에서 놀리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보니 언젠가부터 아이 친구들의 발길이 아침나절에는 푹 끊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 유치원도 안 보내고,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하였지만 아이와 함께 여기저기 함께 다니며 즐기는 것이 재미도 있고 더 유

익한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 그럭저럭 지내다 마침내 내 아이도 학교엘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담임이 누가 되었냐고. 아무개 선생이라고 하자 “어머! 어머! 큰 일 났네. 그 선생이거(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며) 밝히기로 아주 소문난 사람인데.....” 조금 걱정이 들기는 하였으나 선임견을 갖지 말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학부모회의가 있다고 하여 학교에 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담임선생과의 일대일 대화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들추는 선생님과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왔으며 이리이러하게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잇는다고는 하였지만 들은 얘기가 있

어서 긴장하면서도 더 분명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혹은 청소를 도와드리러 혹은 다른 어떤 일로 몇 번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만났지만 밝은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 일 년이 지나 새 학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깜짝 놀랄 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다시 담임을 맡게 되면 이사를 해서라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뭔가 그럴만한 까닭이 있으리라’ 더구나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새 학년이 되자 행인지 불행인지 그 선생이 담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데 얼마 지나자 그 선생님께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다시 일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학급 환경미화를 하는데 내 아이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미술학원조차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미술을 즐기는 편이라, 일학년 수준의 교실환경미화에는 적당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가 기꺼이 신이 나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신을 내다니.....이유가 뭐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전학까지 보내 달라던 아이가 아닌가?’

사실 무엇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입장

가정방문, 소통의 첫발걸음

첫 발령을 받은 2003년 3월. 그토록 꿈꾸던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새롭다. 날마다 아이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더욱 더 사랑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모습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선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즈음, 기윤실 교사모임을 알게 되었다. 기윤실 교사모임에서는 “가정방문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가정방문을 해오고 있다.

처음 가정방문을 시작할 땐 ‘가정방문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웬 가정방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데 가정방문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나면 부모님들의 모습은 180도

로 바뀌어 있었다. 무엇보다 학교에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부모님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우신데, 담임교사가 직접 찾아가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아이의 삶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쏟아놓으셨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아이의 아픈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면 눈물을 쏟으시는 어머님들도 간혹 있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한 나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체면도 없이, 좀 주책맞은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 아이를 놓고 함께 흘린 눈물로 인해 학부모님과 담임교사인 내가 마치 동역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정방문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숨김없이 드러내 놓겠다는 결심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들어설 때면 “저희 이렇게 살아요. 선생님”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다. 내 반 아이가 잠을 자고,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학부모님과 마주대하고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노라면

부모님과 담임교사인 나의 사이에 벌써 두툼한 신뢰가 형성되어 감을 느끼게 된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전화통화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만 전화하게 된다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만 봐도 가슴이 덜컥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담임교사는 이런 저런 상황을 모르는 채, “이 아이는 왜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하며 약간은 짜증스러워지지 않을까?

“어머님~잘 지내시죠? 요즘은 일이 좀 덜 바쁘신가요?” “네~선생님, 아기는 잘 크고 있지요?” 왠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던 학부모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가면서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며 서로 죄송하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한 번 마주대하고 이야기 하고 나면 더욱 정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도 역시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깃든 말 한 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곤 하는 것 같다. 한 차례의 가정방문만으로 모든 부모님들과 따뜻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도 연락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한 교사이다. 이것을 알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 놓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사소하지만 잔잔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겠다.

이선이 (광주전산고등학교 국어교사)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공개 질의 분석

무응답 76%, 쇠고기사용여부 학운위 결정 40.6%, 서울학교 수입산쇠고기 사용 비율 46%

지난 5월부터 한달이 넘도록 성난 촛불을 들고 참여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먹어야 하는 학교급식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교육과 이를 각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80%이상이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우겨대고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우리회와 국회의원 안민석의원실은 수도권지역의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광우병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태를 파악 하고자 공개 질의를 하였다.

수도권 초중고, 무응답 76%나 돼

서울, 인천, 경기지역 초·중·고 3,350개 학교 중에 818개 학교에서 전체 24%가 회신하였다. 조사기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기간이며,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회신율이 저조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3개 시도 회신율 중 서울은 10%의 회신율로 경기, 인천 보다 현저히 낮다. 이토록 서울이 가장 낮은 회신율을 보인 것은 경기, 인천이 대부분 직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위탁급식 비율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급식업체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려 할 것이며,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재료에 대한 학교 측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 극히 저조한 회신율로 나타났다 분석된다.

초, 중, 고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6.2%, 중학교는 25.7%, 고등학교는 17.4%로 나타나 고등학교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에 비해 회신율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위탁급식 비율이 높고 학교급식으로 두 번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사용여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곳은 40%에 지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학교급식 사용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 단위를 물었다. 조사에 응한 학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 바를 의견으로 표명한 곳은 40.6%에 지나지 않았으며, 학교장이 의견을 표명한 학교는 47.6%로 나타났다. 학교장, 학운위가 동시에 의견을 표명한 곳은 5.0%였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학교도 6.8%에 이르렀다. 학교 급식 전반적인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심의하고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는 방침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에 응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12.5%의 학교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바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다수의 학교는 국내산을 사용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체 76%의 학교 역시 국내산 쇠고기만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경기, 인천지역은 대체로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수입산을 사용한 곳이 46%나 되는데 역시 위탁급식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시행규칙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축산법’ (쇠고기 -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에서 명시된 것에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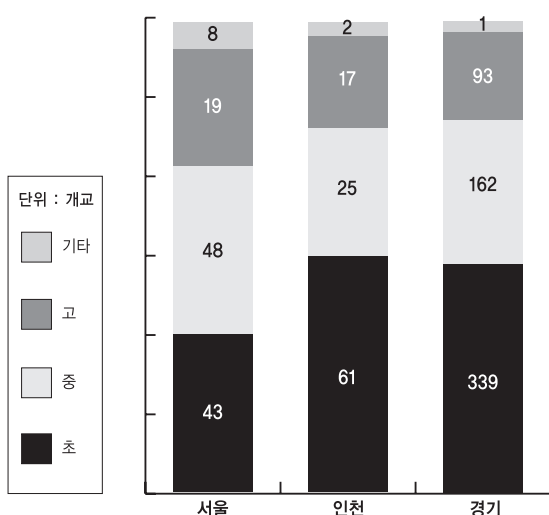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될 경우 사용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응답이 없는 76%의 학교와 의견표시를 하지 않은 3.1%의 학교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뒷늦게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리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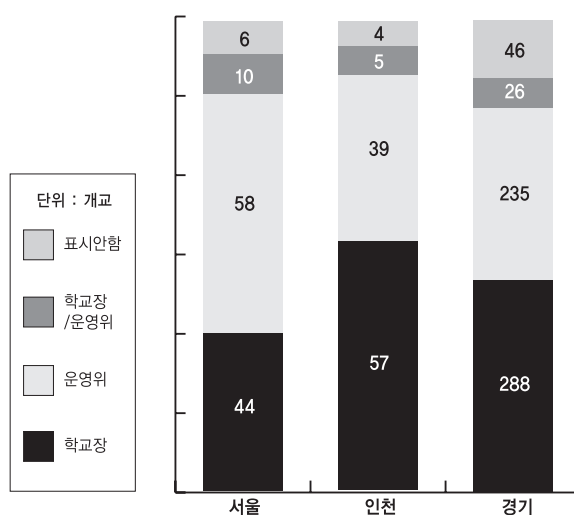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정부에 원천봉쇄를 강력하게 요구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급식 참여는 더욱 절실해졌다. 단위학교 학교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광우병 위험, GMO, 식품첨가물 없는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하고 감독하도록 우리 학부모들이 앞장서야 한다. 납품업체 선정시 수입산을 취급하는 업체를 자격에서 제한하고 믿을 수 없는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검수하며 급식 식재료 검수활동과 식재료 납품업체 불시 실사는 필수로 하여야 한다. 더욱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소인지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분쇄육까지 학교급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더욱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급식을 보장 받기 위한 기초적인 실천운동은 날마다 해야하는 급식 식재료 검수임을 잊지 말자!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

〈지역별 회신학교〉



〈의견표명 단위〉



● 조사개요 ●

조사방법 서울, 경기, 인천지역 3,688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팩스 전송
→ 전송 실패한 338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전송일시 2008년 5월 22일

회신기한 2008년 6월 2일

회신방법 국회의원 안민석 사무실,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실의 팩스 또는 이메일

조사내용 글 참조

교장 공모제를 살려야 한다

오늘날 학교에 대한 불만의 상당 부분은 관료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고, 교육보다는 행정적 업무 처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학교의 교사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승진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제도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바로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터널을 통과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장자격증은 진정한 교장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기계적인 점수를 쌓아서 교장으로 임명되는 나라는 없으며, 교장이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하기 위한 직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교장공모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공감대가 확보된 제도였다.



그 결과로 도입된 것이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의 소지 여부를 떠나 유능한 인물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그 선택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득권을 지닌 세력에게는 못마땅한 것이었다. 그래서 주로 교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총의 경우 교장공모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무자격 교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과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물

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유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유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그 가운데서 교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아니한가? 그리고 교장의 선택은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공모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차로 시범 실시되는 교장공모제의 상당 부분이 초빙교장제

로 변질되어버렸다. 초빙교장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인사들로만 공모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승진제도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편 기존 교장들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제도이다.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가 아닌 개방적인 인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교장공모제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선택권을 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13개 대상 학교 모두를 초빙형으로만 지정하는 파행을 빚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본격적인 법제화를 앞두고 또 다시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을 운명이다. 이 대목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교장자격증의 허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물이 학교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장공모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 확대

영어 실력 향상 효과 없이 조기 유학, 영어 사교육만 부채질

교육과정 개정안 8월 말 확정, 2010년 부터 실시 예정

정부는 2010년 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주3시간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전교조 추최 토론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한다.

◇ 이병민 교수(서울대 영어 교육학과)는
- 영어교육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등영어교육 정책을 고찰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영어를 교실이나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 조기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으며, 주당 몇 시간 배웠다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얼마나 영어에 노출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어를 배우는가에 달려있다' 고 강조했다.

- 영어를 교실이나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 조기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으며, 주당 몇 시간 배웠다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 현재 교실 여건, 준비된 교사, 그리고 영어 환경을 고려하면 3-4학년에서 2시간, 5-6학년에서 1시간 늘리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 학생들은 영어가 더욱 중요해지니 다시 영어 학원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것으로 모자라는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해외로 조기유학이나 단기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보낼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영어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전망하였다.

◇ 신은희 교사(초등교사)는

- '97년에 도입된 초등영어는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적으며 초등 영어교육 11년은 명백하게 실패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요구되며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모두 격차를

벌려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격차해 소비비용을 아무리 지출해도 이것이 해결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 지역 아이들은 "교과서를 더 쉽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발달단계, 언어발달과 지적 발달을 토대로 현실적인 초등영어 교육의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지방 영어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 조진희 교사는

-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정책과 과거의 영어정책 등을 비교하여 기존의 영어 원어민 교사도 한국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제대로 된 연수도 받지 못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어민 협력수업을 해본 교사들은 몇 천만 원이나 드는 원어민교사를 1년 쓰는 것보다, 한국인 교사를 연수시켜 평생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밝혔다. 영어전용교사제는 영

어회화를 잘 한다고 해서 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학교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통찰 없이 영어시간을 더 늘려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발상은,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비인간적인 입시경쟁 구조를 보다 공고히 할 뿐이며,

- 우리는 영어교육정책모형으로 "영어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며, 완벽한 실시간 고급 번역시스템으로 국내에서만 공부해도 과학 분야에서 7개의 노벨상을 거머쥔 일본"이 되어야 하고,

- 정부는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명목으로 자행되는 과중한 영어 학습노동 부과를 멈추고, 또한 쓰고 버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영어전용교사를 양산하는 영어교육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 알고계십니까



오는 7월 30일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직선제로 실시된다. 서울시민 유권자는 모두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리울 만큼 그 권한이 막강한데, 최근 '미친교육'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것 또한 서울시교육감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 일반 시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본 지에서는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시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의 의의

낮은 투표율로 직선제의 취지 퇴색 될까 우려...

근오는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민이 직접 뽑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교육대통령 선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선거이다. 서울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상징임과 동시에 학교자율화 정책 이후 정부의 막강한 권한이 이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이다. 그 동안 몇 차례 치러진 지방의 교육감 선거 양상은 형편없는 투표율로 직선제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시민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잠시 교육감 선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교육자치’란 무엇이고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나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교육자치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16개 광역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지방행정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제도처럼, 교육에 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해 교육감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난 2006년 12월 20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시·도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화이다.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시·도 의회에 통합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자치 말살이라는 교육계의 논란과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만 짚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교육감 선거가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선출하는 간접선거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주민통제 원리’와 교육자치의 민주화에 충실한 제도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2010년부터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교육감들 임기의 시작과 종료 날짜가 16개 시·도별로 모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2010년부터는 같은 날짜에 통일시키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16개 시·도별로 다른 것을 통일시키기까지 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시·도에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임

기의 새로운 교육감 선거를 시행하고, 1년 미만인 시·도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고 부교육감이 2010년 6월 30일까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의 이번 선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각 시·도별 선거일정은 충남이 지난 6월 25일 치렀고, 전북 7.23일, 대전 12.17일이다. 경기도는 내년 4월 1년 남짓 임기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과도적인 선거로는 마지막 선거가 된다. 1년 미만인 강원, 전남, 대구, 인천의 경우는 부교육감이 남은 기간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계속 3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중임 제한으로 한 사람이 8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는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발효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셋째,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쉽게 이해하자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선거와 같으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직선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육감 직선제가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용은 3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 선거에 너무 많은 국고와 행정

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둘째, 낮은 투표율로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지난 2007년 2월에 처음 실시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15.3%의 저조한 투표율에 그쳤고 지난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충북, 경남, 울산, 제주 교육감 선거는 대선에 가려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셋째, 선거비용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비용이 34억 6천만원이다.

인구수에 300원을 곱하고 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 이후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자는 비용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득표자는 비용의 5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덕망 있는 사람이라도 그만큼 돈을 동원할 능력이 없으면 출마가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형편없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임시 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데 7월 30일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선거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43% 수준이어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은 2008년도 6조 9천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7만 교원의 인사권과 15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우리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서울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원한다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길 바란다.

7월 30일 서울에서,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고 외치는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이 시작되는 달콤한 혁명을 기대해 본다.

이부영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7.30. 서울교육감 선거

학교자율화조치로 권한이 막강해진 서울시 교육감, 어떤 일을 할까?

교육예산안 편성과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 제정, 학원조례·급식지원조례 같은 각종 조례안 작성, 학교·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0교시 부활·야간자율학습 같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과 보건·학교급식 운영 등 그동안에도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던 교육감이 학교자율화 조치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여 0교시 부활, 초등학교부터 우열반 편성으로 공교육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거짓 학교자율화로 우리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4.15. 학교자율화조치에 따른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보면

- 대통령 권한이었던 공립초중등학교장 임명권, 교육청 국장급 이상의 임명권, 지역교육장, 평생학습관 등 전문기관, 17개 도서관 등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교원 수가 더욱 감축될 수도 있다.

• 0교시, 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 학교에 학원강사 채용, 수준별 이동수업 등이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서울 경우 학교자율화 이후 '0교시' 혹은 '-1교시'가 부활하였으며 초등학교조차 '수준별 이동수업'이 시행되어 어린이들의 가슴을 멎들게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방과후 교실에 학원업자가 들어와 상업행위를 할 수 있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 편성권이 교육감의 자율로, 학교장의 자율로 이양되어 학부모·교사·학생들은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교육청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만 한다.

• 과학영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침이 폐지되어 교육감 자율로 이양될 전망이다. 특히나 특목고와 학교선택제로 학교간 서열이 심각한 서울은 이제 '교육불평등 도시'가 가속

화될 우려가 크다.

• '학교선택제' 등 학교와 지역간 균형문제도 교육감 권한이다. 현 서울교육청이 이른바 '수요자 중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추진하는 '학교선택제-고교선택제'는 학교간, 지역간 불평등 정책이다.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생도 교사도 적극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예산편성권이 있는 교육감이 학교선택제를 추진할 경우, 정부에서 얘기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대책은 아무 실효가 없다. 학교선택제를 통한 불평등은 곧 서울 교육의 동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서울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이처럼 막중한 선택이다.

•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이 없어져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대형 학원의 모의고사를 아무 때나 치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고등학교는 정기고사를 합쳐 연간 9~10회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며 학원은 한 명당 8~9천원이나 하는 모의고사 비용 수익을 얻게 된다.

• 교복공동구매 지침 폐지, 어린이신문 강제구독금지 지침 폐지, 춘지 안 주고 안 받기운동 지침 폐지, 부교재 선정 금지 지침 폐지 등 '학교자율화' 조치를 그대로 수용한 서울교육청은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폐지하였다. 부당한 뒷거래의 온천들을 다시 제재하기 위한 깨끗한 교육감 선출이 투명성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연 3년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50%대의 위탁급식 운영과 계약건, 불법찬조금과 춘지 사건도 한 몫을 해 왔다. 또한 학교간 서열을 가속시키고 오직 성적 경쟁만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일제고사를 확대해 왔다.

서울교육이 지금부터라도 창의적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7.30. 서울교육감. 아니, 교육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자!

박범이 (서울지부장)

민선교육감선거와 학부모 참여

2007년 2월 14일 전국최초로 민선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부산시 교육감은 이미 2선의 현교육감이 버티고 있었지만 예비등록에서는 10여명이나 등록을 하였고 실제 투표에도 6명이나 경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섰음에도 투표일이 가까워 올 때까지 부산 유권자들은 여전히 내 손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례적으로 사무장과 과장3명이 우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했다. 선관위로서도 처음 치루는 선거이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교육감 선거만큼은 참교육학부모회가 한 몫을 다해 주기를 청해 왔다.

먼저, 선관위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자의 역할 분

담을 전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후보자 공약 검증을 통한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난번 교육위원 선거 때 공약검증과 후보자 토론회를 기획했지만 언론사 도움이 제대로 되질 않았고 후보자들은 언론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당일 담합을 하여 핑크를 내고 말았던 기억을 되살려 제일 먼저 한 일이 언론사와의 공동 검증 작업이었다.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모두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문사와 방송사 1곳과 함께 공동 검증단을 운영, 기획 단계부터 투표, 후보자 토론회, 당선인과의 토론회까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학부모, 교사, 학생까지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여 분석한 공약을 방송과 신문에 공동으로 실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방

송과 신문에 생중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학부모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리 선전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선관위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 우리 이름을 명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었다.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단독 선거는 시민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였고 3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1년 후 2008년 2월 교육감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평가 작업을 신문 방송과 함께 공동 시행하여 민선교육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살렸는지에 대해 평가 작업을 하였다.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 대학교육, 부산시민의 평생교육까지 책임져야하는 커다란 책무를 다했는지 살펴보았다. 당선자의 공약 첫 번째 공약이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으로

슬로건이 '사교육비로 휘어진 학부모의 허리를 꼭 펴드리겠습니다' 이었다.

공약의 최우선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담은 것은 그만큼 교육에서 학부모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과연 학부모가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폈는가에 대해서는 공약 평가단에서 '실제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도 없을뿐더러 학부모들이 전혀 체감하지 않고,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 반영된 곳은 거의 없다.'는 평가였다.

교육청 자체 평가 93%이상 높은 이행도 이었지만 우리 평가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대부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라면 마땅히 교육감 선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는 각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숙 (부산지부 정책실장)

‘미친소 ·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갔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송구하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행하고, 미친교육으로 대표되는 거짓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긴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더욱더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때까지 학부모들은 함께 거리로 나갈 것이다.



경기지부

지회 임원 · 회원 연수 진행



지난 6월 12일, 한백교회에서 경기지부 지회 임원, 회원들과 연수를 하루 동안 진행했다. 오전에는 고병현 선생님(성공회대 교수)의 강의 〈사유하는 부모를 위하여〉를 듣고, 오후에는 부서별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고병현 선생님의 강의는 자녀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부모가 가져야할 교육철학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대부분 만족하였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분임토의를 통해 지회운영에 관한 서로의 의견교환 및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날 경기지부 소속 지부지회 임원 ·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부지회 임원 ·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광주지부

6월 생태기행- 아이들의 체험과 장의 발효 설명듣기



참교육학부모회 아이들은 역시 다릅니다. 참 쌀을 어찌나 잘 이쁘게 만들고, 열심히 치대는 지... 모두 해보고 싶어서 줄을 섰답니다. 이 곳 장독은 숨쉬는 항아리로, 도에서 지원을 해줘 전통방법으로 그 맥을 잇고자 한답니다. 된장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고 3년된 장은 그 짭맛이 깊었습니다.

경북지부

지회 임원 · 회원 연수 진행



지난 6월 6일부터 다음날 7일까지 의성 교촌농촌체험학교에서 경북지부 임원 · 회원 연수를 진행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송대현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안전공제회’ 강의를 진행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어 ‘갈등해결 프로그램’ 강의를 통해 지부지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토론하고 바로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교육정책으로 ‘사이비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운숙자 회장님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경북 지부 소속 지부지회 임원 · 회원 15여명이 참석하였다.

나주시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낙농체험』



지난 6월 6일, 무안군 현경면 「파도 목장」으로 낙농 체험을 진행하였다. 아이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의 교과서이며, 노동의 소중함, 생명의 중요함, 그리고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된다. 당일날 프로그램은 우유짜기, 소골주기, 송아지 우유먹이기, 초지체험 및 갯벌체험 등을 진행했다.

포항지회

이명박 정부의 '415교육자율화 조치에 대한 토론회' 진행



지난 6월 19일, 포항지회는 포항 교육시민연대(준)와 함께 포항교육청 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시험 성적으로 해마다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입시지옥과 학습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서 더

욱 강도 높게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그동안 교육주체들이 요구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과물들을 일시에 폐기하겠다고 나서는 교육과학부의 공교육 죽이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구지부

5월 월례회, 자녀의 성교육



대구지부는 매월 있는 월례회에서 회원과 함께 교육 및 나눔의 자리를 마련한다. 5월에 있는 월례회에서는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성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먼저 우리 어른들의 사고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구여성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경남지부

'미친 교육을 바로 잡자'... 경남교육연대 출범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가 결성되었다. 경남교육연대는 17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교육인적과 학부가 지난 4월 15일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남교육연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학부모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경남교육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저지를 비롯하여 "경남교육청의 관료적 교육행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한다"면서 "대학서열화 깨기에서 교육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다짐했다.

부산지부 · 울산지부

4.15 조치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교육이며 의료, 공공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급식은 안전한지, 건강하고 훌륭하게 커가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입쇠고기로부터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지켜내고,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숙지를 위해 울산과 부산은 지난 6월에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의정부지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 학부모 간담회 진행



지난 5월 30일, 거부에 동참하신 학부모들과 운동본부가 함께 모여 질의응답 및 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녁시간과 월말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하셨지만 마음만으로 함께 하겠다는 학부모님들을 가슴에 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정부중학교에 전교조 의정부지회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14명의 학부모가 동참하고 계셔서 그분들만 따로 간담회자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은자 전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더욱 감사했어요.(의정부지회)

창립축하

7월 달에는 영암, 구리남양주, 용인, 구미, 사천, 진주지회가 생일을 맞습니다. 태어난 년도는 각각 다르지만,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이라는 모토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뛰시는 열정만큼은 같습니다. 이번 달 생일상을 맞은 지부지회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우리 아이들과 참학을 위해서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년 7월 1일 영암지회 창립

2000년 7월 7일 구리남양주지회창립

2005년 7월 7일 용인지회 창립

2003년 7월 12일 구미지회 창립

1998년 7월 16일 사천지회창립

1998년 7월 20일 진주지회창립



사람향기 바람따라 ● 안성숙(고양지회 역사모임 회원)



Q 본인과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지회 초기에 아동 미술 소모임으로 참교육학부모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사서로 일을 해 오다 올해 역사모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서클럽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남편(오아시스 박해현-우리는 집에서 자기이름 앞에 꿈이름을 부릅니다, 이기적인 박해현-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부릅니다), 고3(코레일 박창주), 중1(발명가 박민주)의 든든한 두 아들 4식구입니다.

Q 우리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첫아이 창주 5살 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하는 서울 은평지회 월례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생활을 해보리가 마음먹고 일산으

로 이사를 와서 아동미술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분들이 여전히 든든히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Q 활동을 해보니 어떻게가요?

큰애가 4살, 둘째 젓먹이던 때에 은평지회 소식지를 만들며 부모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공부한 덕에 남편의 지원과 아이들도 참교육학부모회 일에 관심을 보이고 좋아했습니다. 사실 큰 아이가 2월생이라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 보다 느리고 어렸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참교육에 관한 월례회 강연과 소모임을 통하여 참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배웠기 때문에 즐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이품을 지켜보며 저도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를 접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부모훈련을 ...

면 아이들을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 닦달하고 강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아이는 항공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아이들은 모두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자라 왔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좋은 책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있는지 알고 있고 부모로써 내 삶의 기쁨과 고통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자신의 목표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동기부여가 되고 학교 교육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세요?

얼마 전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 보다 더 많다면 나는 남편보다 냉장고가 더 가깝다! 이제는 정말 완벽한 냉장고를 선택하리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선택한 상황은 경쟁에 치중하여 품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결정했다고 말하며 제가 남편을 놀립니다. '이번이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형은 근사하고 내부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된 최고 품질의 냉장고를 고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냉장고와 나의 관계가 최고라고...

그렇다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하면 어떠한가. 환

상적인 가족관계. 나와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최고 행복한 지원자로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냉장고는 최고의 품질이 아니어도 좋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의 기준은 높이고 밖에서의 경쟁력은 낮추어 서로 협력하게 하는 교육이 아들과 부모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튼튼한 냉장고(?)의 6가지 특징을 기억해 냅니다. 1.헌신, 2.감사와 애정, 3.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4.함께 보냄, 5.영성적 성장, 6.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환상적인 가족만들기/Nick & Nancy Stinnet 지음/학지사)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Q 현재 고양지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90년대 말 우리 지회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부모교육'을 활동의 중심에 두었다면, 지금의 우리 지회의 지금의 목표는 학부모의 삶을 돕고 이웃의 삶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사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며 배웁니다.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론 경험과 성과물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남기면 정말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속의 인권

아이들에겐 방학이 없어요

장마가 한창일때 전국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늦잠도 자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 영화 마음껏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방학이 있어 학창시절이 더 추억이 많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방학이 없어진지 오래다. 고3 뿐만 아니라, 고1, 고2학년도 보충수업으로 방학 중에도 학교를 가야한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각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보충수업 비는 학부모 부담이다.

며칠 전 한 학부모가 하소연을 해 왔다. 올해 고1인 아이가 여름방학 중에 2박3일로 봉사캠프에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빼달라고 했는데 학교선생님은 보충수업 빠지면 결석 처리 하는 것은 물론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떤 학교는 방학 중에 수업진도를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방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나가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 또한 작년에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보충학습 빼달라고 선생님을 찾아가다가 '당신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가든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그냥 억지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학교측은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어쩔 수 없다. 단체생활에서 한 두명 빠지면 다 빠지려고 하고 그럼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한다. 그럼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만 자율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들러리로 희생시킬 순 없다.

그리고 한명, 두 명 빠지면 다 빠진다고 하는데, 이는 보충수업은 원하는 사람만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단체생

활 강조하여 보충수업 빠지면 마치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성적과 대학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학교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침서 전달로 할일 다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못 본 체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침대로 잘 이행하는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똑 같은 사람은 없다. 타고난 재능이 저마다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은 10여년간 똑같은 교과목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여 줄 세우고 그 과정에 적응 못하면 낙오자 취급해온 것을 반성은커녕 오히려 방학까지 없애려하고 있다. 방학 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날개를 활짝 달아주자.

정혜란 (경남지부 정책실장)

● 학부모일기

기본을 챙기지 못한 엄마의 초등학생 입학 보고서

우리 둘째이자 막내인 지용인 아직도 한글이 서툴지요. 학교를 보내긴 해야 하는데, 초조하고 바빴지만 그건 제 마음일 뿐이었죠. 나름 훌륭한 교육을 한 답시고 한글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 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온갖 억압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 지용이의 의지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네요.

한 달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제 마음은 처음처럼 두렵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 아무진 지용이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학교 생활하는 걸 보면서부터죠. 입학한 다음날부터 알림장을 쓰는데..사실 처음엔 암호 해독 수준이었답니다.

줄을 맞추기도 힘들어 하고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을 그렸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정도였어요. 그랬던 우리 지용이가 지금은 제법 줄 맞춰 쓰고, 알림장 혼자 쓴 걸 자랑도 할 정도가 되었

어요.

“엄마! 난 엄마가 내 가방 안 맞았으면 좋겠어.”(기분이 영 안 좋아 보임)

“그래, 지용이 가방이니까 엄마 맘대로 열 순 없지. 그런데 알림장은?”

“알림장도 안 봤으면 좋겠어.”(여전히 시무룩한 지용)

“그치만 알림장은 그날 있었던 거나 내일 필요한 준비물이 적혀있기도 하고, 엄마가 읽어본 다음 사인도 해야 하는데.”

“사인도 한 했으면 좋겠어.” (계속 시무룩한 지용)

“우리 지용이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구나.”

“(울먹이며)그래, 알림장 쓰다 팔 부러지는 줄 알았어. 학교가 이렇게 싫은 줄 몰랐어. 학교보다 유치원이 더 나아. 유치원은 글자 몰라도 되잖아..6살로 돌아가서 글자 다 알고 초등학교 왔으면 좋겠어.”

이때까지만 해도 어지간히 심란했어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싫어서. 다음 날, 지용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많이 안심이 되고 천천히 가는 지용이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남의 집 애들처럼 한글 다배고 하는 1학년이 아니라 지용이의 걸음에 맞는 1학년 생활을 옆에서 지켜봐 줘야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선생님은 하루하루 천천히 가는 지용이 발걸음에 맞추어 주시며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던 6월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온 지용이가, “엄마, 내가 제법 글씨를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아?” “엄마 나도 +100점 받고 싶다!” 하더군요.

지용이 반엔 받아쓰기 100점을 맞고 거기에 더해서 글자도 또박또박 깨끗하게 쓰면 +100점을 주고 상으로 아이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거기엔 “반장 3번

하기”, “간식 가져와서 뽀내며 먹기”등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지용이가 얼마나 그걸 받고 싶겠어요.

“엄마 오늘은 나 혼자 써 볼게. 10분 후에 나한테 와줘.” 하며 열의를 불태우지만 곧이어 “엄마,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겠어.”하며 곧 찾기도 하고, 마음처럼 외워지지 않는다며 불만이 가득차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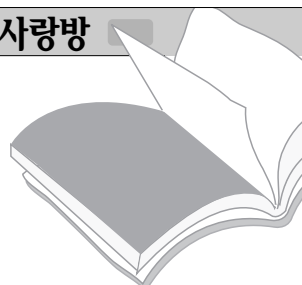
그런 지용이를 어느 날 선생님이 받아쓰기 채점을 하시다가 부르셨대요. 5개 틀려서 50점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지용이 글씨가 너무 예뻐지고 또박또박 써서 +100점을 주신다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그날 우리 지용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렇게 아이한테 맞추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앞으로도 지용이 얼굴에 웃음과 자신감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박상현 (서울 구암중 1)

문화사랑방

침묵의 봄 (Silent Spring)



“이 마을은 어떤 나쁜 마술적 주문에 걸린 것 같았다. 병아리 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고 소나 양들이 병으로 죽어 갔다. 사방이 죽음의 장막으로 덮여졌다.



세상을 보는 글썽 8

... 자연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하리 만큼 조용했다. 것처럼 즐겁게 재잘거리며 날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쩌다가 발견되는 몇 마리 새들도 몹시 떨면서 날지도 못하고 푸드덕 거리다가 죽고 마는 것이었다. 봄은 왔는데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 책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한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여 점점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린다는 우화로 시작한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경종을 울린 책이다. 레이첼이 주목한 것은 수확량을 늘릴 목적으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마구 쓰이는 살충제나 제초제등이다.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심각한 남용과 무분별한 사용은 오

히려 내성이 생긴 해충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되고, 화학물질은 다시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체내에 축적될 경우 암과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학자 카슨은 화학적 방제로 해충을 박멸하려던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지, 그리고 인간과 지구 생태계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환경 책 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책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첼 카슨은 빈틈없는 과학지식과 시적 언어 그리고 놀랄만한 해안으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저술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 미국 시민들은 공중에서 무차별 살포되던 살충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카슨은 이 책이 출판 된지 채 2년이 못돼 암으로 사망했지만 그녀로 인해 많은 생물종들과 그들의

서식지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레이첼 카슨은 1963년 CBS 방송 연설에서 과학 기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비판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결코 자연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는 미숙하고 유치한 자연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좀 더 성숙한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 둘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따름이다...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매사를 경쟁관계로 보는 우리 시각이 문제이다”

이희정(사무처장)

● 지부지회소모임 - 의정부지회

마음나누기 ‘에니어그램 소모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진정한 대화

우리 지회의 에니어그램 소모임은 2006년 <자아실현>의 한 과정으로 12강에 걸쳐 <에니어그램 특강>을 듣고 일회성이 아닌 소모임으로 구축해 가자는 회원들의 바람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회원으로는 김이순 모듬장(소담), 최주영(해바라기), 이영미(시냇물), 오명실(여울), 홍정이(뚝단배), 남혜진(바람), 조창숙(다슬기), 박은영(나비).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근감의 일환으로 별칭을 쓰고 있다.

에니어그램의 시작은 박범서 선생님(하누리 성장센터)으로부터 ‘기본과정 (12강):에니어그램의 정의’로써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9가지성격유형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를 들었으며, 그에 이어 ‘심화과정(12강):<어린시절 자기성찰>, <춤 세라피>, <마음 풀어내기>, <명상>’을 하면서 더욱 성숙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언 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 변화가 있다면 조창숙(다



슬기)의 출산으로 회원(?)이 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끔씩 유동성을 두어 회원들 간의 집에서도 모임을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에니어그램의 지혜-이론공부와 한주

간의 생활 나눔을 통해 "나와 다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회원들과의 마음을 교류하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박범서 선생님과 마음 나누기를 병행하며 더욱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 소모임의 특별한 의미는 회원들 간의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박범서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올곧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상하반기 모꼬지 1박2일을 지새우며 이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진정한 대화, 이것이 우리 소모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인들이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자아의 내면 성찰과 마음 다지기로 우리 의정부지회를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소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박은영 (의정부지회)



우리들의 . . . i n g

뚝단배 ...

내 인생의 최대 보너스는 참학의 '자기실현' 시리즈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참학'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아요. 거칠고 뿌리 깊은 응어리들이 줄줄줄 뿔어나오는 그 아픔과 쾌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만날 때 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나의 소중한 사람들... 함께 놀자구요!!!

다슬기...

"나도 나를 잘 몰라."

"나를 알고 싶어"

에니어그램의 시작은 그랬다. 어색하게 서로를 조금씩 내보이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인정하기 힘든 내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보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기에 나를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 안에서 나는 빛나는 보석 민식이를 얻게 되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서로의 마음 나눔을 통해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길...

나비...

마음공부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한 것이 이 에니어그램입니다. 개인의 성격유형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이 세상은 내가 잘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멋대로의 삶이 자만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한발 한발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조금씩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담...

에니어그램 모임 안에서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만나면 좋고, 만나면 솔직해지고 싶고, 그동안 지낸 이야기 듣고 싶고, 나는 무슨 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야기 하고 싶고, 같이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 그들과 내가 얼마나 시리게 아름다운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울...

자리매김한지 6년으로 접어들어 가네요. 벌써... 마치 내가 여섯 살이 된 것처럼 사람을 느끼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맘을 남에게 보이거란 쉽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할 수 있었어요. 모두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 주니까요. 그래서 힘이나요

바람...

함께 해 온 여러분들 모두모두 사랑해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아 힘이 들기도 하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곁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계속 나아갈게요.

시냇물...

님들과 함께 마음 나누고 빗장을 열어 가며 파리 틀었던 속내 드러내는 힘겨움... 그렇게 사람으로 만나가고 있습니다. 발그레한 복숭아 빛으로 새 살을 피워내며... 당신들의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해바라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곤혹스럽기도 했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탐구하는 <우리>가 대견하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다 보면 온갖 꽃이 어우러진 꽃동산에 마침내 이루지 않을까?

● TV 속에서 보여지는 장애인의 이미지 들여다보기 ① - 드라마 편 |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드라마 속 지적장애인의 캐릭터

SBS ‘온에어’ 드라마 속 드라마 <티켓 투 더 문> 은형과 ‘우리 집에 왜 왔니?’ 동수를 보고

지상파 방송 SBS <온에어>와 <우리 집에 왜 왔니?>를 모니터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두 편의 드라마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있는 사람이 등장할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에서는 지적장애인의 모습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7세의 지능(지적장애)의 모습을 그리면서 너무 아이처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온에어>는 한편의 드라마가 제작되는 과정 속에 PD,작가, 배우, 매니저 등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온에어>속 제작 드라마 <티켓 투 더 문>에서는 7세 지능을 가진 25세역을 맡은 톱스타 오승아의 걸과 속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 집에 왜 왔니>는 천신만고 끝에 천 억대 자산가의 데릴사위로 들어간 조기동이에게는 형 조수동(지적장애)이 걸림돌이 되고, 아내가 되는 말팔량이 한미수(이소연)와 겪는 전쟁 같은 해프닝과 머슴 생활과도 같은 처가살이를 그려나간다.

<우리 집에 왜 왔니?>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면이 참신했으며, 드라마의 서사구조나 등장인물이 시청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수동(지적장애)은 동생의 데릴 사위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은수 아버지와 은수의 배려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회의, 가족사진, 가족



야유회 동행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가족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집에 왜 왔니?>에서는 저런 팔푼이가~(은수의 큰언니는 수동보고), 바보를 바보라 하는데 화 안나요.(은수가 수동에게), 여기에서 수동은 상대에게 비하용어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 꾸중을 들을 때면 수동은 습관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 주변 인물들은 수동에게 유아에게 사물을 칭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꼬까웃, 때때, 아야해', 신호등도 구별 못하는 캐릭터로 자립적인 사고는 거의 없고 모방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33세 지적장애인을 그리고 있다.

반면<온에어>의 경우 드라마 속 캐릭터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직업, 성격, 개성, 감성이 다양하다. 그에 비해 장애인 등장수는 극히 드문데다 단 한 명의 장애인 이미지는 갈등요소와 왜곡 투성이다.

제작기획 중 은형 캐릭터에 대한 논란, 은형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갑자기 잃은 부모님, 재산 상속과정을 중심으로 친지 등장, 은형은 환경변화와 자립생활을 하나씩 익히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상중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속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버린다.

7세 지능을 가진 아이에 매몰된 이미지화

은형(지적장애)은 주위사람 및 친지에게 자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느린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친지들의 원망을 잘 모르겠다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맛이 어떤 건지, 어디서 사왔는지, 은행에 돈을 조금 찾아서 반찬을 살거라고, 언니가 '은형'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

고 묻고, 선생님께 이제 피아노, 영어 배울 돈으로 반찬과 쌀을 구입해야 한다고, 일하는 아줌마보고 은형은 집에 있어달라고 애원하고, 20여 년 만에 언니랑 재회하여 언니 집에서 생활하면서 좁은 집, 비데 없이



는 못산다는 것이 은형의 동선들이다. 은형은 25세로 대해주는 사람 없이 어린애 취급을 받고 스스로도 어린이 수준으로 언행을 한다. 은형의 캐릭터를 자립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는 장면은 보기 드물다.

이렇듯 드라마 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정형화 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대사나 장면들이 잦다. 용어는 생각, 인식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장애를 가졌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면서 생활하는 과정도 있는데 반해, 드라마 속 이미지는 단순한 사고력과 수동적동선, 흔히 어린이들이 모방하는 수준으로 놀이 또한 유아들이 즐기는 모습으로 그렸다. 그뿐만 아니라 7세를 강조하기 위해 뭉뚱배지에 바가지 머리를 고사하고, 색색의 옷을 입히거나, 어리게 보이기 위한 의상과 헤어까지도 아동틱하게 해주는 센스(?)도 발휘해 주었다. 주위 사람들의 비하용어가 잦고 같은 형제인 동생까지도 꼴통이라고 형을 호칭하는 장면 등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 대한 인식개선은 커녕 오히려 고정된 이미지를 각인 시켜준다는 점에서 역행하는 드라마로 보여 진다. 실제 드라마 시청은 시청등급의 효율성이 저조

한 현실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드라마 시청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단조로운 동선과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는데 소극적

2007년 방송 드라마 속 장애인 캐릭터는 동선이 단조롭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이었다. 제작진 또한 장애인 권의식 부족 및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또한 구별하여 재현하기 보담 뭉뚱그려 이미지화하였다. 올해 2008년도는 드라마 속 장애인 캐릭터는 집안에서 생활하기 보담 사회에 나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동선이 다양하다. 문제는 지적장애인 출연 시 그들의 모습을 성인의 나이를 가장한 7세의 어린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단지 지적능력(지능이 낮다)이 낮다는 이유로 그들이 가져야하는 25세 은형이와 33세의 동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들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주위 사람들은 질문이 엉뚱하다고 하여 무시하고, 지적능력이 낮다는 선입견으로 제작진 또한 7세 지능을 가진 아이에 매몰되어 이미지화했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사회 인식 개선이 절실한 현실에서 드라마에서는 장애인 캐릭터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수동적인 사고와 동선으로 코믹한 분위기로 만들고선 이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고 표명하는 것이 제작진들의 마인드다. 이런 전제 스토리가 사회 불특정 다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 장르이기도 한 만큼 소재의 사용에 있어 충분한 고민의 과정을 걸쳐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길 기대해 본다.

이명박 정부 KBS 장악 음모, KBS 이사 탄압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칭)” 결성

지난 6월 20일 동의대는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과 /KBS 이사)에 대해 △총장의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한 점 △KBS 이사회 참석차 국내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KBS 이사회 참석차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해임' 한다는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동의대가 표면적으로는 학교 규정 위반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 해임 결정 배경에는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및 'KBS 장악' 시도로 보인다. KBS 정연주 사장에 우호적인 신태섭 KBS 이사를 사퇴시키기 위해 교과부는 감사를 동원해 동의대 측을 압박했고, 동의대는 이에 굴복하여 신태섭을 해임한 것.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행

태는 '언론'을 장악과 통제, 정권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5공식 독재'이며, 또한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언론노조, 동의대 총학생회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Q&A
상담실

이런 답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다. 우리 아이 답임은 40대 여교사인데 아이들에게 막말을 한다. 노트나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오면 손바닥을 때리고 수업시간 내내 뒤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날려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또한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 어머니를 거론하며 흉을 본다거나 '선생님이 싫으면 너희가 전학을 가라'거나 '정신병원이나 가라'거나 음악시간에 박자를 못 맞추는 아이에게 '미친 놈이 박자도 못 맞추느냐'고 욕설을 한다.

또한 수업을 빼먹고 컴퓨터 작업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느끼기엔 금품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금품을 받은 후 편애를 하거나 발표를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대표를 뽑아서 교사를 만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수용하면서 "잘못했다, 힘들어서 그런다. 신학기라 정신없어 그렇다"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가 없다. 현재 30여명의 학부모 중 4~5명이 동조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 상담실입니다. 아이가 관련되어 있어 부모님의 가치관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행동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구요. 그러나 아이 교육은 부모님의 등 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앞서 보이면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모님에게 교사

의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소연하는데 부모님들이 무조건 참고 지나가자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뜻을 묵살한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교사문제라는 의식을 떠나서 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의 말과 행동을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적어도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사의 비교육적인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학부모들에게 알려 동참자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대표를 뽑아 답임교사를 면담하기 바랍니다. 대표성을 지녔다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아이와 학부모에게 어떤 불이익도 줘선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안 되면 학교장을 면담할 것이고 학교장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상급기관의 민원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미리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걸음이 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아이에게도 설명하여 이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대화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나를 돌아본 아들과의 여행

올 봄, 초등학교 4학년 딸이 2박3일로 수학여행을 갈 거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나는 "이건 기회다" 싶었다. 1학년 때부터 큰 아이는 온갖 캠프나 체험여행이니 하는 구실로 방학이면 3, 4일씩 집을 떠나 있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유난히 엄마를 보려는 딸아이는 이때껏 한 번도 나와 떨어져서 자 본 적이 없었다.

수학여행을 빌미로 딸아子和 나도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해보고, 홈스쿨이라는 미명 아래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에 진절머리 내고 있는 십대 아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아들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같이 여행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응해준다. 남편도 좋은 생각 같단다. 글썄.... 평소엔 제 어미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무작스럽게 잘라버려 자주 내 인내심의 바닥을 보게 하던 패썹한 놈인데 얼마나 지루했으면 저리 반색을 할까 싶어 내심 안쓰럽다.

어쨌거나 딸아이를 관광버스에 실어 보내자마자 우린 차를 출발시켜 첫 목적지인 월정사로 향했다. 아직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들놈 다섯 살 때 세 식구가 같이 갔던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의 인상이 너무도 강렬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나도 아들도 꽤나 이 여행에 들떠 있던 터라 원래 목적인 관계 개선은 이미 이루어진 듯싶었다. 늘 엄마와의 사이에 끼어드는 얄미운 여동생도 없고, 목적하게 바라보는 아빠의 시선도 없으니 저도 뭘지 모를 흥가분함을 느끼는지 생전 안 하던 얘기들을 술술 잘도 한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절들은 기대했던 만큼 고요하지 않아 실망스러웠지만 적멸보궁에 이르는 한 시간 여의 산행 동안 불쑥 커버린 아들 녀석의 존재가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십여년 전 이 길을 갈 땐 다리 아프다고 보채서 제 아빠랑 번갈아가며 업어주었는데 이제 혁혁대는 제 어미를 밀어주고 손잡아 끌어주며 가고 있다. 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지는 못하는 걸까? 아이가 자라는 만큼 내 이기심도 자랐나보다.

생각해보니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냈다고 질책하는 내 냉정한 말들을 언젠가부터 아들녀석이 느긋하게 받아줬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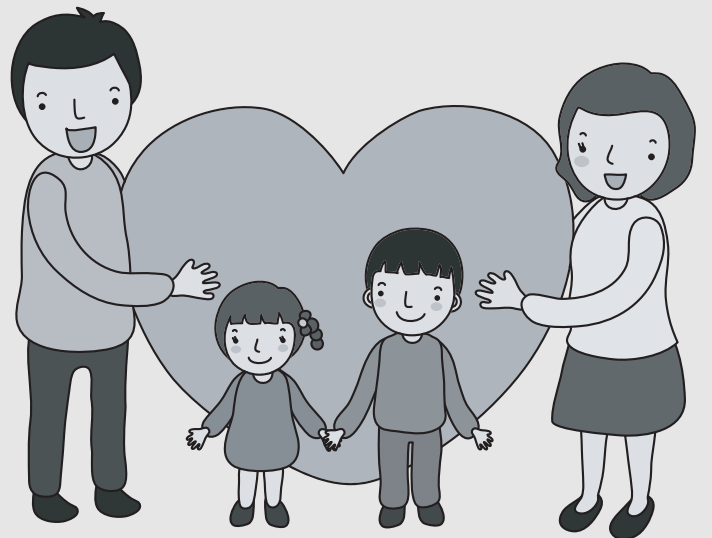
"엄마, 릴렉스, 릴렉스."

나는 갑자기 이 여행을 혹시 아들녀석

이 내게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획책한 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때부터 우리 여행은 내겐 긴 자책의 시간이, 아들녀석에게는 그걸 빌미로 한 맛집 기행이 되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경포 바닷가, 오죽헌 찍고 허난설헌 생가의 고즈넉함에 한껏취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광화문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행은 끝났다.

이양순(회원)



사설

서울 교육감 선거 앞두고 '미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정치선동 세력으로 몰아 부치는 한국 교총의 속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5일 제288차 이사회참석자 일동의 이름으로 최근 정국과 교육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 하면서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 미친 교육이 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국민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결의문의 첫번째 요구중의 하나가 '교육정책까지 미친 교육이라는 반 교육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은 교육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이다. 마치 조중동의 신문기사를 보는 듯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 지고 있는 우리 교육과 영어교육을 보면서 '미친 교육, 미친 영어'라 말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특목고 입학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를 넘나들며 학원심야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영어 학원으로 수험학원으로 전전하다 밤 11시경에서야 집으로 돌아 오는 초등학교 아이들 길에서 만나면서, 부모 품안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할 어린나이에 영어를 위해 바다건너로 떠나야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분노하지 않는 집단이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개혁을 위한 교장제도 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인 교장 공모제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교원정년 연장을주장하는 이 단체의 요구를 우리 학부모는 예의 주시 하고 있다. 교장들의 밥그릇 보장과 자리 보전을 위해

한해 200여명의 우리 아이들을 자살하는 현실은 외면한채 현정부와 조중동과 한패가 되고자 하는 교원단체가 존재 한다는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이 우리 교육에 대해 충분히 절망하고 분노 할 만 하다.

7월 30일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학교장 출신의 후보가 보수세력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들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는 '미친교육'이 변화를 요구하며 촛불을 든 후보가 있다. 학교장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한국 교총이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7월 30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심판과 함께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울산·경남 급식연대 '광우병 안전학교' 위한 질의서 결과 발표

울산 학교, 24.7% 학교만 미국산 쇠고기 쓰지 않겠다 답변

경남지역 급식연대, 982교 대상 공문 보낸 결과 99개교만 참여

지난 6월초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광우병 안전학교를 위한 질의서를 보낸 후 울산, 경남에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질의서를 보낸 결과 회신율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아래 급식연대)는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총 982개교 가운데 99개교만 '학생 건강권과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수입 쇠고기 사용안 하기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할 것"과 "경남도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를 단체급식 식단에서 배제하는 안전한 급식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 "경남지역 모든 학교장들은 학교급식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

서 서명에 동참하고 이를 실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도 19일 오전10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급학교에 보낸 '광우병 안전학교'를 위한 질의서 회신 결과를 발표하고 '광우병 안전학교와 친환경 학교급식'을 촉구했다.

급식연대는 "회신율이 저조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확실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산쇠고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70%이상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경남, 울산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관심을 갖도록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윤숙자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전은자 장은숙 박은희
주소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동 5반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숙자	수석부회장 박이선	부회장 장은숙 김석순 정순임
감사 김미옥 임명희 서경자	사무처장 이희정	상
담실실장 정채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언론정보출판위원위원장 송환웅
상근자 김임정 심정숙 박은희		
서울지부	02)393-8900	지부장 박범이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박범이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노현경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최주영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19-9171-6639	지회장 유진경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2-8720	지회장 김희영
	용인지회 031)281-7696	지회장 이정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최주영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문항자
	수원지회 031)254-2004	지회장 박준영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11-9797-3633	지회장 윤금옥
	정선(준) 011-9798-0690	위원장 이주형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6-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오승주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16)98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0-7566-0798	지회장 김승남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김영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1-537-0983	지부장 정복순
	안동지회 054)853-5902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054)972-8334	지회장 김승준
	구미지회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준) 010-7580-8796	위원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한중권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황은득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이 헌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9-507-1459	지회장 장승아
	김해지회 055)321-8929	지회장
	거창지회 011-9046-3463	지회장 서미경
	밀양지회 016-478-1035	지회장 박재호

자문위원회 ●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지원(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만남(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남부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백상빈(강릉아산병원 정신과 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들 심리 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성(경원대학교 총장)

광고

홍성에서
날아온 소식

홍성에서 손정희씨(홍성 전지회장)가 유기농 가계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이번에는 유기농 감자(햇감자)를 판다고 합니다.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감자.. 20kg 한박스 2만 5천원(택배비 포함) 이라고 합니다. 참차 회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수익금 중 일부를 본부에 후원해 주시겠습니다. ^.^ ☎ 문의전화 010-7403-3207 손정희

도시개발 대표그룹

DSD

꿈을 세계로 펼쳐갑니다

가치를 미래로 키워갑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 -
꿈의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도시개발 대표그룹

Dream Space Developer - DSD



DSD삼호·DSD부림·한독건설·신삼호·삼호건설·호담·소리자비

**Dream
Space
Developer**